

DataFam Seoul 2026

행사 핵심 요약집

From Seeing to Doing
with Agentic Analytics



DataFam Seoul 2026, 데이터와 AI로 비즈니스의 미래를 열다

2026년 8월 20일(목), Tableau의 연간 최대 컨퍼런스 'DataFam Seoul 2026'이 1,000여 명의 리더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에 Tableau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진화와 비즈니스 혁신 전략을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키노트 세션을 시작으로 9개의 트랙 세션, 10개 이상의 Tableau 및 스폰서 데모 부스, 그리고 국내 최고 데이터 시각화 챔피언을 가리는 'Viz Games' 결승전과 다채로운 네트워킹 프로그램까지, 데이터 기반 혁신의 생생한 현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약집을 200% 활용하는 팁

본 자료는 참석자분들께는 현장의 인사이트를 되새기고, 아쉽게 함께하지 못한 분들께는 핵심 전략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제작된 프리미엄 요약본입니다. 독자님의 상황에 맞춰 이 문서를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면 **행사 참석자**

- **팀 내 인사이트 빠른 전파:** 각 세션의 핵심 요약본을 사내 채널이나 보고서 작성에 바로 활용하여 팀원들과 현장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세요.
- **타 트랙 세션 완벽 캐치업:** 동시간대에 진행되어 아쉽게 놓쳤던 다른 트랙 세션의 발표 내용도 한눈에 스캐닝할 수 있습니다.
- **실행을 위한 액션 플랜 수립:** 세션별 핵심 포인트와 발표자료 링크를 활용해 우리 조직에 바로 적용할 실천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세요.

아쉽게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불참자 & 온디맨드 시청자**

- **핵심 트렌드 우선 탐색:** 요약본을 통해 우리 비즈니스에 가장 시급한 전략과 핵심 키워드를 먼저 파악하세요.
- **1:1 맞춤형 AI 전환 컨설팅:** 우리 기업의 산업/직무에 딱 맞춘 AI 도입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영업대표 또는 [Tableau 공식 홈페이지](#)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DataFam[®]
Seoul



Agentic Analytics, 데이터를 ‘보는 시대’에서 ‘행동하는 시대’로

Session

데이터 시각화를 넘어 자율형 의사결정과 실시간 행동을 끌어내는 Tableau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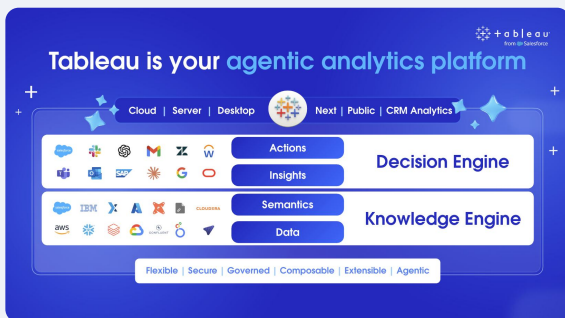
Speakers

김영균 Tableau 한국 영업 총괄 / Matthew Miller VP, Global Tableau Product Management /
 이수민 Tableau 리드 솔루션 엔지니어 / 박상윤 Tableau 솔루션 엔지니어

◆ 핵심 요약

1 Visual Analytics에서 Agentic Analytics로의 진화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셀프서비스 분석을 유지하면서, AI Agent가 필요한 순간 분석을 돕고 다음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Visual Analytics, 셀프서비스 분석, 증강 분석 (Augmented)을 거쳐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이끄는 Agentic Analytics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더해지면서 누구나 더 빠르고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Platform Architecture: 2대 핵심 엔진 기반의 통합 플랫폼

데이터와 의미(Semantics)를 다루는 Knowledge Engine과 인사이트를 실행으로 잇는 Decision Engine으로 완성됩니다. Tableau Cloud, Server부터 차세대 Next 환경까지 개별 도구가 아닌 단일 아키텍처로 구동됩니다. 보안, 거버넌스, 유연성을 갖추어 기업의 어떠한 데이터 환경에서도 막힘없이 확장 가능한 AI 분석 기반을 제공합니다.

3 Knowledge Engine: 기업 내 모든 지식과 데이터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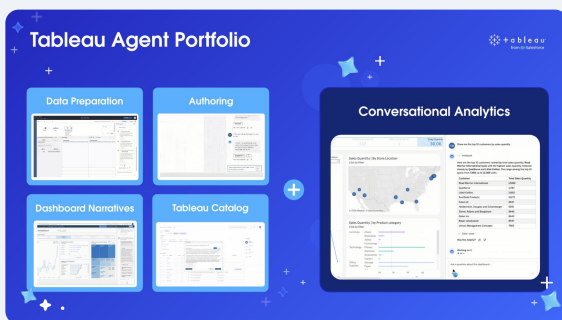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업무 기준, 가이드라인, 사내 규정 같은 비정형 지식까지 하나로 통합하고 연결합니다.

Tableau Knowledge Engine은 업무에 필요한 모든 정형·비정형 지식을 통합하고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뿐 아니라 사람까지 모두가 동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Decision Engine: 일하고 있는 모든 접점 속에서의 판단

업무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동일한 데이터와 맥락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Headless Analytics가 실현됩니다. 모바일, 업무 시스템에 임베딩된 화면, Slack·Teams 같은 협업툴, AI 에이전트 등 어디에서 일하든 같은 데이터와 비즈니스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분석 전 과정으로 확장되는 Tableau Agent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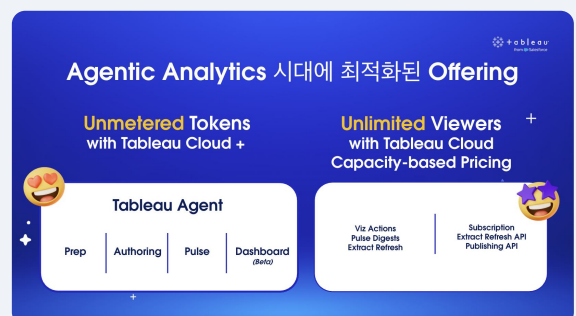
데이터 전처리부터 시각화 작성, 대시보드 요약, 대화형 분석까지 분석의 전 단계에서 AI가 사용자를 보조합니다.

이제 Tableau Agent를 통해 데이터 전처리를 돕는 Data Preparation, 자연어로 시각화하는 Authoring, 대시보드를 읽고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Dashboard Narratives, 디스크립션 초안을 작성하는 Tableau Catalog 기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6 Agentic Analytics 시대에 최적화된 요금 체계

토큰 사용량을 걱정할 필요 없는 Unmetered Tokens와 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사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합니다.

추가 토큰 크레딧 부담 없이 필요한 순간마다 Tableau Agent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속 인원 수가 아닌 사용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Cloud Capacity-based Pricing(Unlimited Viewers)을 통해, 더 많은 구성원이 제약 없이 데이터와 AI를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제약 데이터의 세 가지 조건과 Tableau

Session BRP Insight - 제약 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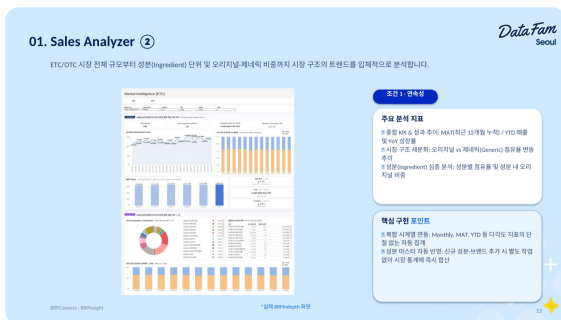
Speakers 박영규 대표, BRP Connect


BaroPharm

핵심 요약

1 소규모 팀으로 17개 대시보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Tableau Prep 전처리 파이프라인

매일 유입되는 제각각의 약국 거래 데이터를 자동 정제·매칭하여, 신제품 출시 첫 주부터 흐름이 끊기지 않는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신규 품목 자동 등록 파이프라인과 WHO ATC 코드 매칭을 적용해 주·월·분기 단위의 연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완성했습니다. 개발팀 의존 없는 원스택(One Stack) 전처리 구조를 구축하여, 별도 백엔드 개발 없이도 17개 고객사 맞춤형 대시보드를 안정적으로 동시에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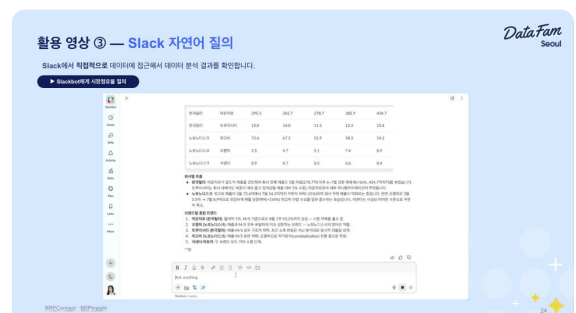


2 재추출 없이 필터 교체만으로 다각도 분석을 지원하는 '분석 키값' 설계

로우데이터 한 벌에 지역, 채널, 성분, 브랜드 키값을 미리 부여하여 어떤 질문에도 즉시 응답하는 '유연성'을 구현합니다. 단일 로우데이터 구조 위에 분석용 키를 미리 붙여 두어, 새로운 분석 요청 시 데이터를 재추출하는 데이터 범목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한 벌의 데이터만으로 영업 성과, 지역 커버리지, 가격 분포, 유통/재고 등 4가지 핵심 대시보드를 자유롭게 전환하며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신뢰를 만드는 데이터 도메인 QC와 Tableau 기반 AI(Pulse/Slackbot) 연동

도메인 전문가의 검증으로 '정확성'을 확보하고, Tableau Agent 및 Slackbot을 연동하여 데이터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약사 출신 데이터팀의 엄격한 규격 단위 검수(QC)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요청 처리 시간을 5일에서 1일로 단축했습니다. 정제된 데이터 기반 위에 Tableau Pulse 및 Slackbot을 연동하여, 대시보드를 열지 않고도 실시간 점유율과 인사이트 브리핑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AI가 답을 내리는 시대, 왜 여전히 분석가는 Tableau로 지표를 설계하는가?

KRAFTON
Session AI 시대에도 분석가가 지표를 설계하는 이유

Speakers 김우림 데이터 분석가, 크래프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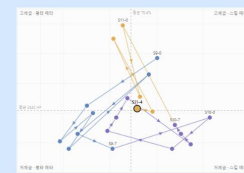
핵심 요약

1 AI가 던진 '그럴듯한 정답'의 함정과 비판적 검증

AI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코드나 대시보드 초안으로 구현하여 초기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줍니다. 하지만 AI가 도출한 산출물이 그럴듯해 보일수록 비판적 검증 없이 넘어가기 쉽다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AI가 제안한 단순 결과 중심의 분류(예: 데미지 기여 순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전혀 다른 플레이 방식이 같은 유형으로 묶이는 비즈니스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좋은 분석은 빠름을 넘어, 이러한 예외와 모순을 찾아내는 비판적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AI로 분석 시작하기

분석가는 도메인 가설을 제시하고, AI는 계산 가능한 형태로 빠르게 구현



Mockup > Tableau 전환 검토

- 패치별 지속 갱신
- 실제 조합까지 탐색
- 조직 내 공유와 재사용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

Tableau에서 다시 보기

예상과 다른 분류 방식



A: 100 (데미지 기여 + 탱크)



B: 001 (데미지 기여 + 지원)


 A, B 모두
데미지 기여 조합(001)로 분류

*A 조합이 기대 이하 성과인 경우

전통 방식이 아닌 게임 결과 분류

기대한 분류 방식: "함 팀이 싸우려는 방식"

AI가 분류한 방식: "이 게임에서 데미지 기여도"

전통 방식은 다르지만, 데미지 기여 순서는 같아질 수 있음

게임 기획자들에게 이 두 조합이 같다고 하면...?

신뢰 가지 않는 유형 구분으로 이후 분석 신뢰도 동반 하락

2 태블로(Tableau),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드는 심층 검증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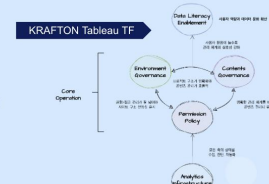
AI 시대에도 태블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태블로가 단순한 시각화 툴이 아닌 '검증과 거버넌스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AI가 가설을 빠르게 실험한다면, 태블로는 그 결과물을 원천 데이터(근거)까지 파고들어 다각도로 재검증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크래프톤은 태블로를 통해 부서 간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하고 권한을 통제하며, 결과물에 대해 조직 전체가 함께 비판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개인의 인사이트를 전사적 자산으로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3 AI 시대 데이터 분석가의 진화된 역할: '기준의 재정의'와 '책임'

AI 시대에 분석가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AI가 실행 시간을 줄여준 만큼, 분석가는 비즈니스 현장(게임 기획자 등)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이면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AI의 기계적 분류에서 발견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가가 직접 '역할 관계 중심'으로 메타 기준을 재설계했다, 결국 비즈니스 맥락에 맞는 잣대를 정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100% 신뢰 가능한 지표의 완성엔 인간 분석가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빠른 답 이후의 역할 좋은 판단이 조직에 남으려면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연결
- 필요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Insight를 조직에 아카이브

데이터 기반 스마트 구매 생태계의 미래 비전

Session

정보 우위 중심의 구매 DX와 Tableau 통합 분석 아키텍처

Speakers

김대성 상무, LG CNS


LG CNS

핵심 요약

1 ERP와 외부 시장 데이터를 하나로 잇는 Tableau 시맨틱 통합 아키텍처

파편화된 사내 운영 시스템과 상황·환율 등 외부 데이터를 통합 시맨틱 레이어로 연동하여 구매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ERP, 품질, 물류 등 내부 데이터에 외환·시장 데이터를 Tableau 5계층 아키텍처로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리스크 신호를 실시간 감지하고 선제 대응하는 정보 우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Spend 분석 x Self-BI

표준지표 기반 정형·비정형 보고서 제공 + 담당자가 데이터 원본에 직접 접근해 분석하는 Self-BI 환경

원자재	설비	공사	MRO
동작감별 지출 단가 추이	투자 설비 구매 집행 현황	공사 발주기장 지출 분석	소요량 자체 지출 구매 인도
제공 보고서 - 표준지표 기반 - 표준지표 정의에 따른 정형 보고서 - 카테고리 조직 협력사 품목 계층별 지출 드릴다운 - 비정형(Ad-hoc) 보고서 - 이슈 요청에 맞춘 맞춤 분석 보고서 표준지표 계산에 의거해 제공 - 기간 비교(YoY/MoM) - 관리 가능 지출 - 협력사 집중도 등 공통 지표 체계			
Self-BI 환경 - 스스로 만드는 분석 - 구매담당자가 Tableau 데이터 원본에 직접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분석 - 표준지표가 내장된 게시된 데이터원본 위에서 드래그&드롭 셀프 분석 - 교육 프로그램 진행 운영 '만들어 주는 보고서'와 '스스로 만드는 분석'의 두 축을 함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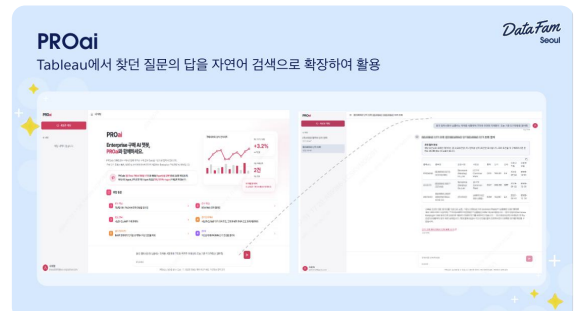
* 정형 보고서는 조직의 공통 언어를, Self-BI는 개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 - 5~6 초의 한계 기반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감지 → 판단 → 실행' 순환을 가속화하는 표준지표 및 Self-BI 환경

공통 KPI 기반의 표준 보고서와 현업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Self-BI 환경을 동시에 제공해 조직 전체의 데이터 활용을 일상화합니다. Tableau의 검증된 데이터 원본(Governed Data Source)을 활용해 현업이 직접 이상 징후 원인을 탐색합니다. 리스크 감지부터 협상 실행까지의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단가 관리 및 Compliance 추적을 자동화했습니다.

3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 위에서 완성되는 AI 기반 스마트 구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시맨틱 모델을 기반으로, 질문만으로 분석 결과부터 대응 방안까지 제안받는 AI 구매 환경으로 확장합니다. Tableau 기반의 단일 진실 원천(SSOT)을 통해 AI 도입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신뢰도와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Tableau에 연결된 데이터와 비즈니스 맥락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까지 제안하는 자율형 분석(Agentic Analytics)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에서 Tableau 운영하기: 1년의 최적화 여정

Session 대규모 Tableau 환경의 운영 자동화, 데이터 리니지 및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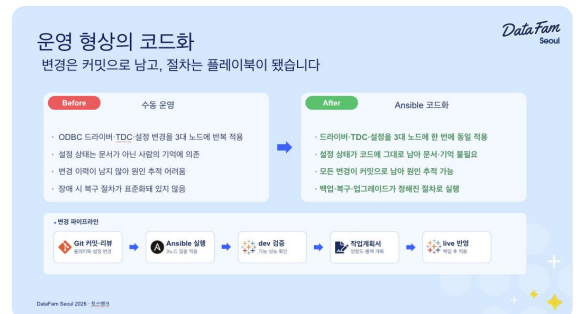
Speakers 최우영 데이터 엔지니어, 토스뱅크



핵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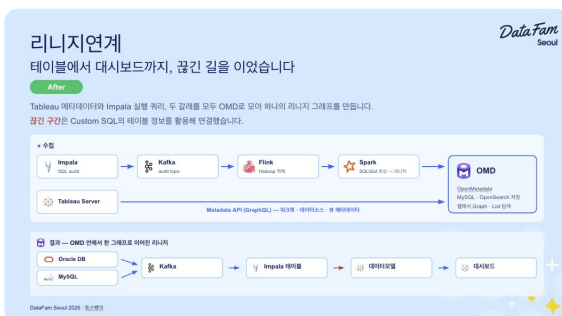
1 코드 기반(IaC) 환경 구성과 검증된 백업 파이프라인의 운영 자동화

배치 스크립트 및 Ansible 코드화를 통해 대규모 서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휴먼 에러를 차단합니다. 서버 설정과 업그레이드, 로그 정리 등 반복적인 운영 작업을 코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일관된 운영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매일 자동 실행되는 백업 및 검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시스템 장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합니다.



2 쿼리-워크북-담당자를 추적하는 데이터 리니지(Lineage) 구축

Metadata API와 정규화 조인을 활용해 리소스 부하 쿼리의 발생 원인과 소유자를 명확히 식별합니다. 실행 로그와 워크북 정보를 자동으로 정규화 매칭하여 92%의 높은 매칭률로 쿼리 소유자와 연결 구조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고침 실패 시 담당자 자동 통보와 대시보드 전용 자원 풀(Pool) 분리를 적용해 전체 데이터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3 셀프서비스 권한 관리와 미사용 자산 자동 회수 중심의 거버넌스 고도화

투명한 이력 관리와 포털 기반의 셀프서비스 권한 체계를 정착시켜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합니다. 과도한 Admin 권한을 회수하고 프로젝트 접근을 그룹 단위로 통제하여 인가되지 않은 데이터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일별 활동 이력을 기반으로 미사용 계정과 워크북 권한을 자동 회수하며, 권한 신청부터 회수까지의 전 과정을 이력 DB로 관리해 감사 대응을 자동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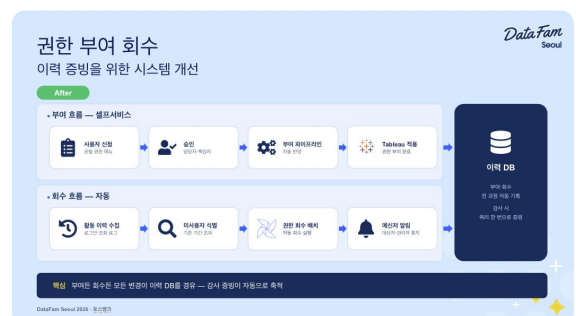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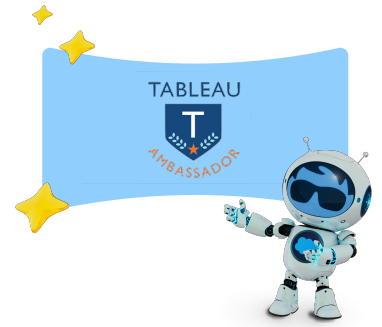


Tableau 야호!

AI시대, 도구에서 문화까지

Session 데이터 시각화를 넘어 자율형 의사결정과 실시간 행동을 끌어내는 Tableau의 미래

Speakers 강승일, Tableau Ambassador



핵심 요약

1 AX(AI Transformation)의 성공을 결정짓는 DX 기틀 마련

AI 도입(AX)은 독립적인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사결정 체계(DX)가 구축된 조직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DX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DX=0)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AI를 도입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Tableau는 단순 숫자를 확인하는 수준(WHAT)을 넘어, 드래그 앤 드롭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WHY)과 실행 방안(SO WHAT)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 DX 도구로 작동합니다.

AX는 DX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지금 모두가 AX를 말합니다 - 도입은 빠르는데, 성과는 더딥니다

DataFam Seoul

① 어디서 멈추나

모달이 아니라 데이터가 문제
부서별로 흩어진 역할
서로 다른 자료 정의
알 수 있게 만드는 데 시간 대부분

문제는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② 무엇이 없나

"그 숫자 어디서 나오요?"
같은 질문에 부서마다 다른 숫자
같은 근거가 사람마다 다름
AI에게 물어도 답이 흔들립니다

근거가 없으면 AI도 흔들립니다

③ AX = DX × AI

AX
AI Transformation

DX가 기반이 되어야
AI가 의미를, AI를 실행해도

AI 도입은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가 준비된 조직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도구를 넘어 문화로 ① 변화 관리
사람 · 프로세스 · 리더십이 함께 움직여야 시작됩니다

DataFam Seoul

사람

챔피언(앰배서더)을 먼저 세우기
작은 성공을 빠르게 알리기
잘 쓰는 사람을 보아게 하기
정원할 곳이 있어야 계속됩니다

누가 이끄는가

프로세스

온보딩에 대시보드 교육 넣기
주간 리뷰를 '무단으로'
자료 정의를 문서로 남기기
요청이 아니라 셀프서비스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리더십

리더가 먼저 화면을 열기
보고서 대신 대시보드로 회의
"그 숫자 어디서?"를 묻기
실패한 시도를 잊지 않기

위에서 먼저 바뀌어야

새로운 사람이 첫날부터 소속감을 느끼도록 - 그게 문화입니다

2 지속 가능한 셀프서비스를 완성하는 3대 문화 축과 사내 경진대회

단순 도구 배포를 넘어 사람, 프로세스, 리더십이 함께 움직일 때 데이터가 조직의 공통 언어로 스며듭니다. 사내 챔피언(앰배서더)을 육성하고 대시보드 중심의 주간 리뷰 루틴을 정착시키는 변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내 Viz 챌린지 및 부트캠프 형태의 경진대회를 열어 구성원들에게 재미와 자발적 동기를 부여할 때, 대시보드 활용이 전사 문화로 확산됩니다.

3 생산성과 학습을 가속하는 AI 기반 Tableau 워크플로우

AI는 분석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어 질의, 계산식 가공, 자동 요약 등 반복 업무를 가속하는 서포터로 작동합니다. Tableau Agent 및 Claude 연동을 통해 복잡한 수식 작성이나 데이터 준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Slack 봇 기반의 분석 리포트 자동 배달과 데이터 다운로더 등 AI와 연동된 환경을 구축하여 전사 직원의 데이터 접근 장벽을 낮춥니다.

AI와 결합 — 대체가 아니라, 가속

DataFam Seoul

자연어 질의

문고 답을 얻는 분석 (Tableau Agent - Pulse)

계산식 도우미

Claude가 수식, 데이터 준비를 맡아서 기쁨기

인사이트 요약

대시보드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 · 설명

학습 가속

AI가 빠른 템플릿 학습법 - 두려움이 아니라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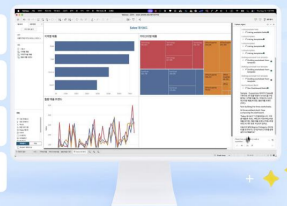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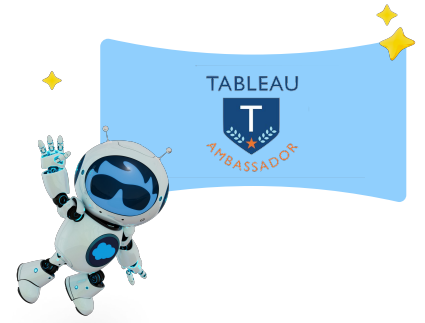


Tableau Agent 제대로 쓰는 법: Prep부터 Dashboard까지

Session 데이터 분석 첫걸음, Agent와 함께 시작하기

Speakers 강슬기, Tableau Ambassador



핵심 요약

1 Prep의 Tableau Agent로 복잡한 광고 데이터 정제 자동화하기

파편화된 채널별 리포트를 수기 작업 없이 자연어 명령만으로 실시간 자동 통합·정제합니다. 틱톡, 메타, 구글 등 서로 다른 플랫폼의 리포트를 수기 작업 없이 자연어 명령만으로 실시간 통합·정제합니다. "필드명 통일", "구분자 분할" 등의 한 줄 프롬프트로 재현 가능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자동 구축할 수 있습니다.

DEMO - 01 시연 ① · 출어진 3개 매체 리포트를 한 플로우로



DEMO - 02 시연 ② · 정리한 데이터로 차트까지

시연 2: 프롬프트 4요소	01. 통계를 나타내기
프롬프트 4요소	[제안] 어떤 → 데이터를 보고 싶은 요소를 물어줌
11월 세계 총합 광고 성과	02. 어떤: 어떤 데이터를 보여 줄 것인가를 질문. 그리고
광고: 총합, 평균, 최대, 최소, 노출, 클릭, 전환, 광고비	"통계정보를 광고에 집계된 차트로 보여줘"
03. 계산: 어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길 원하	"CPA 계산 결과를 만들어줘: 전환 / 클릭"
04. 필터: 어떤: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필터링하	"브랜딩을 필터링해" → [필터 추가] 창에서 클릭으로 선택
이름: 어떤: Output	
그래프: 어떤: Output	
시각화: 어떤: Output	

2 원하는 결과를 100% 얻어내는 Agent 프롬프트 공식

'동사 + 대상 + 예시/기준'을 명시하는 프롬프트 규칙만 지켜도 분석 정확도가 극대화됩니다. Agent는 범용 챗봇이 아닌 데이터 위에서 일하는 실무자입니다. "CPA 계산 필드 생성"과 "차트 시각화"처럼 태스크를 2단계로 나누어 지시하고, [대괄호]를 활용해 정확한 필드명을 명시하면 오류 없이 빠르게 원하는 시각화(Viz)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체크리스트 4가지를 활용하여 분석효율 극대화하기

실패 없이 데이터 셋업부터 메타데이터 정비까지, 사전 준비가 완료될 때 Tableau Agent가 역할을 200% 발휘합니다. 성공적인 Agent 도입을 위해 Tableau+ 라이선스와 데이터 라이브/추출 설정 등 기본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터 타입을 사전에 정돈하고, Prep(정제)과 Desktop(시각화)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여 구동할 때 데이터 분석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Closing - One-page checklist 원페이지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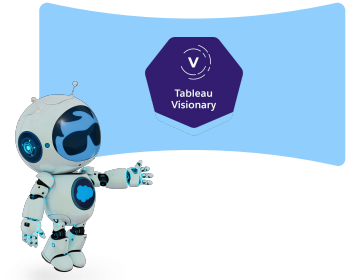
시작 전 · 설정 · 데이터 연결 · 흐름도 확인 · 실행 확인, 이내 확인으로

01. 시작 전 확인	02. 데이터 연결	03. 흐름도 확인	04. 실행 확인
□ Tableau+ 라이선스 □ 데이터 연결 > 라이브 > 연결	□ 필드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확인 □ 필드명 > 표명, 단위 > 일치 □ 데이터 필드 일치 □ 데이터 > 추출 > 추출	□ 데이터 흐름도 확인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계산 > 계산식 > 계산식 □ 데이터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 흐름도

Tableau MCP와 Claude Code로 만드는 AI 분석 워크플로우

Session Tableau 전·중·후의 반복 업무 자동화

Speakers 전서연, Tableau Visionary



핵심 요약

1 프롬프트 반복을 넘어 재사용 가능한 분석 워크플로우 구축하기

일회성 프롬프트 입력에서 벗어나 역할(Agent)과 기준(Rule)을 정의해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완성합니다. 프로젝트마다 매번 같은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하면 비용 증가와 맥락 누락 문제가 발생합니다. 데이터 탐색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각 단계별 역할과 공통 분석 기준, 실행 순서를 미리 문서화함으로써, 데이터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석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4 에이전트 구성

단계를 담당 역할과 산출물 사전 정의

에이전트	목적 · MD 요약	산출물	Tableau 연결
@data-ingestion	원본 · 다중 · 연속 수집	데이터 프로파일	데이터 원본 구조 사전 검증
@eda	분포 · 이상치 · 변수 관계	EDA 요약	통계 요약, 커스텀 시각화
@problem	질문 질문 확장	질문 정의	질문 이해, 질문 1개
@metrics	지표 이름 · 계산식 · 범위	KPI 정의서	계산 필드 등록 · QA 테스트 기준
@analysis	가설 검증 · 근거 기록	분석 리포트	커스텀 템플릿 · 증거 근거
@dashboard	리포트 간략 · 데이터 요약	대시보드 사전	재판 기준 · 데이터로케이션 변경
@report	일련성 한 장 요약	원래대로 보고서	구독 채널과 같은 추가 발송

요청 Rule 적용 · 자동 실행 가능 ·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3.1 컨텍스트 경계



Claude Code 입력 · 처리 · MCP 연결 · AI 서버 출력

2 Tableau MCP로 보안과 권한을 지키며 기업 데이터 자산 연결하기

Claude Code와 Tableau를 안전하게 연결하여 기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안에서 워크북과 뷰를 자유롭게 조회합니다. 로컬 문서나 파편화된 파일 조회에 그치던 AI 분석의 한계를 Tableau MCP(Model Context Protocol)로 극복합니다. 기존 사용자의 계정 권한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그대로 적용하여, 보안 유출 걱정 없이 기업 내 대시보드, 메타데이터, KPI 이상 항목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색·정리하도록 지원합니다.

3 신뢰 기반의 AI 도입을 위한 4단계 실무 적용 로드맵

단 하나의 반복 업무에서 시작해 검증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AI 위임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무리한 전면 도입 대신 '매주 데이터 점검'이나 '대시보드 목록 정리' 같은 명확한 반복 업무 1개를 선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Tableau MCP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이 분석기준과 최종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통해 신뢰도 높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1 실무 도입 순서

- 1 작은 업무부터
반복 주기 명확 · 산출물 정의 · 성공 기준 합의
- 2 범위 범위부터
전용 계정 · PAT 인력 관리 · 인증 사용자는 OAuth
- 3 검증 기준 정의
KPI 정의서 · 관련 지표 필드 · 이상치 기준 Rule
- 4 단계적 확장
저용 기록 검토 · 대량 업무 추가 · 초기 권한은 승인 후

패널링 → 검증 → 확장
215 Tableau MCP 운영 매뉴얼 2024. PAT 문서





Tableau를
체험해보세요



Tableau 체험하기

다른 기업들의
비즈니스 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업 사례 확인하기

Tableau
교육프로그램 로드맵



Tableau 챔피언 되기

